

미용부터 헬스케어까지... 제약업계 '의료기기 사업' 출사표

유한양행 성우전자와 업무계약
의료용·미용기기 개발 속도전
광동제약 프리시전바이오 인수 계획
대웅제약 가슴 탈부착 모니터링
심전도 패치 '모비케어' 공급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기기 '모비케어'

/대웅제약

국내 제약 업계가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 등과 접목해 다양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은 지난 17일 성우전자와 성장사업을 위한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유한양행의 더마 화장품 제품에 성우전자의 제조 기술을 적용한 의료·미용기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앞서 지난 2023년 비건 선크림 브랜드 '딘시'를 공개하는 등 뷰티 사업에 손을 뻗어 왔다. 제약사가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효능의 건강한 뷰

티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딘시는 현재 국내 대표 뷰티 시장인 CJ올리브영에 입점하고, 롯데홈쇼핑이 만든 인기 캐릭터 벨리곰과 협업하는 등 브랜드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성우전자는 올해 1월 의료용 기기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등을 정관에 추가했다. 성우전자가 지난 5월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성우전자는 피부

노화 방지 및 미용에 사용하는 필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를 사업 기회로 보고 있다.

성우전자는 오는 2026년 필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약 40억, 2025년 16억, 2026년 38억원 등을 지속 투자한다.

이처럼 유한양행과 성우전자가 뷰티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온의 사업 고도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사 개발생산) 기업인 코스온은 지난 2023년 12월 8일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고, 유한양행은 올해 1월과 2월에 진행된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았다. 그 결과, 유한양행은 올해 1분기 기준, 코스온에 대한 지분을 32.5%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밖에 유한양행은 동물용 의료기기 사업도 펼쳤다. 유한양행은 지난 2023년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플루토와 협업해 '애니콘주'를 출시했다. 애니콘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함유해 골관절염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다.

한편 광동제약은 체외진단기기 기업과 맞손을 잡고 신사업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지난 2일 프리시전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아이센스 등이 보유한 주식 29.7%를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 금액은 약 17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프리시전바이오는 인체·동물용 검사기, 카트리지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이다. 광동제약은 질병 조기 진단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의료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모비케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건강검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심전도 검사 솔루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모비케어'는 가슴에 탈부착하는 기기로, 장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심장 이상까지 조기 발견할 수 있다. 또 부정맥 진단에 필요한 심전도, 심박, 심박 변이, 호흡, 체온, 활동량 등 생체 신호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기 무게는 19g으로 작고 편리한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중견사 4곳 중 3곳 "하반기 투자계획 없어"

중견련, 기업 412곳 투자전망 조사
'투자' 25% 중 88% '확대·유지'
18%는 투자규모 1000억 이상

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하반기에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수시장 부진, 경기 악화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4곳 중 1곳은 하반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상반기에 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를 18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는 '투자계획이 없다', 25%는 '투자계획이 있다'고 각각 밝혔다.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 중

88.4%는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확대(45.7%)하거나 유지(42.7%)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17.8%의 투자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하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은 '주력사업 확장(36.2%)'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노후설비 개선·교체(23.4%) ▲신사업 진출(19.1%) ▲해외 시장 진출(1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내수시장 부진(33.3%) ▲경기 악화(25.0%) ▲수출 부진(8.4%) ▲고금리, 자금조달 애로(8.3%) 등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25%는 상반기에 투자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투자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내부자

금 활용(52.8%)', '금융권 차입(35.8%)', '정책금융 활용(5.7%)', '주식, 회사채 발행(3.8%)', '기타(1.9%)' 순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34.0%)'과 '금리인하(27.4%)', '물가안정 및 내수 활성화(18.9%)'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최근 생산성 하락, 미래 먹거리 산업 부재, 설비투자 둔화 등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면서 "정부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성공을 위해 성장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왼쪽 4번째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쪽 단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한-일 中企 교류·협력 확대

日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맞손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중소기업계와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중기중앙회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중기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동우·김석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선 모리 히로시 회장, 사토 테츠야 전무, 오이가와 마사루 사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업종별 협동조합·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간 인적·기술 교류 확대 ▲공급망 발전을 위

한 중소기업간 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경영여로 해소를 위한 정책·정보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195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만 7000여개 중소기업 협·단체와 협회 산하 224만여개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 대표 단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일 중소기업 경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한·일 단체 간 정책 포럼 교차 개최를 통해 중소기업이 상호방문 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서클 경제교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기보, 시스템반도체 기업에 2000억 보증

기업 추가육성에 정책역량 집중

기술보증기금이 시스템반도체 기업 추가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반도체 분야에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보는 최근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벤처정책관과 함께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스템반도체 벤처기업 아이엔디바이스를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벤처정책관과 기보 직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시스템반도체 기업 아이엔디바이스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기보

아이엔디바이스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석사출신 박기태 대표가 2008년 삼성전자와 페어차일드 반도체 출신인력들과 함께 설립한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업데이트

게임사인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에 신규 의상 육성 우마무스메와 스토리 이벤트를 업데이트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는 실존하는 경주마의 이름과 영혼을 이어받은 캐릭터를 육성하고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이번 업데이트에는 신규 의상 육성 우마무스메 '메지로 아르담'과 '사쿠라 치요노 오'가 공개됐다. 이들은 스토리 행사 '그러니 그대, 사랑스럽네'에 등장하는 캐릭터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판로 개척 돕는다

중기유통센터,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8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여러 항목들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해 해외쇼핑몰

입점과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상품 기술서, 리스팅이미지 현지 언어 번역 ▲현지어로 제작된 제품 홍보 콘텐츠 ▲해외 소핑몰 입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상표권 등록, 인증 취득 등 항목 중 1가지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 패키지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총 100개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김승호 기자